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2. 11.(화) 11:00 < 2.12.(수) 조간 > 배포 2025. 2.11.(화)

양자기술이 견인하는 차세대 제조혁신, 「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 출범

- 100여명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모색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2월 11일(화), 서울 롯데호텔에서 「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출범식을 개최했다.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, 스타트업,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·학·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.

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·물류·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. 국내에서도 양자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.

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 포럼은 양자컴퓨터, 소프트웨어,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,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(R&D), 인프라,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.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, △단기에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R&D 전략*, △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.

* 업종별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, 이를 실행할 소프트웨어(어플리케이션 등)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, 최적화된 OS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패키지 형태의 R&D

산업기반실장은 “기업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R&D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며, “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·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한편,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동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,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국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	강규형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은 (044-203-454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 발족식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(일시)** ’25. 2. 11.(화), 14:00 ~ 15:30 (90분)

○ **(장소)** **롯데호텔 가넷스위트(37F)** (서울 중구 을지로 30)

○ **(주관)**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한국양자산업협회

○ **(참석)** 산업부, 공공기관, 산·학·연 위원 등 약 100명

○ **(주요내용)** **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을** 촉진하기 위한 **Kick-off 회의**로, **산업계 활용방안** 및 **필요한 정부정책** 등 논의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행사 내용	비 고
14:00~14:05	5′	**모두발언**	산업기반실장
14:05~15:25	15′	발제 ❶ **양자기술 전반 및 산업화 전략**	카이스트 이준구 교수
	15′	발제 ❷ **클라우드 등 산업계 활용 방향**	메가존클라우드 김동호 부사장
	15′	발제 ❸ **양자 알고리즘·소프트웨어 응용**	연세대학교 박경덕 교수
	35′	**토론 및 질의응답**	발제자 3인 + 산업계·연구소 패널
15:25~15:30	5′	**마무리발언**	